

인간과 하천
 ● 3
 River & Culture



시어 정민주 |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시인
 (mypoemmylife@hanmail.net)

하천과 우리 설화 1 압록강

인류문명의 젖줄 바로 그 근원지인 하천(河川). 그리고 옛날 이야기이며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설화(說話). 그렇다면 하천에 얽힌 설화는 어떨까.

늘 금수강산을 병풍삼아 두르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유독 강에 얽힌 설화가 많다. 그 설화들은 단지 재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애환, 민족의 역사, 정한(情恨)의 감정을 모두 담아내는데 그 안에서의 강은 시시각각 그 의미를 달리한다. 때로는 물이 상징하는 바의 생산과 풍요, 그리고 모태(母胎)로의 회귀라는 신화세계에서의 원초적인 의미에서부터, 자연환경으로서의 강이 환기하는 서정적인 면모, 역사적인 아픔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모두 두루 담아내는 것이다.

하천(河川)과 설화(說話). 그 흥미로운 이야기의 첫 번째로 한국(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강, 압록강(鴨綠江)에 관한 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환웅¹⁾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란 이가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들

을 널리 이롭게 해줄만 했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 개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²⁾ 마루턱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이른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穀)·수명(命)·질병(病)·형벌(刑)·선악(善惡) 등을 주관하고,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중략)...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하였더니 환웅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한 것이다.

해모수³⁾

천제의 아들 해모수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하늘로부터의 하강, 둘째는 하백의 딸 유화와의 혼인, 셋째는 하늘로의 회귀이다.

1) 권복순. 「건국 신화의 하늘과 땅·단군·주몽·혁거세·수로신화를 중심으로」, p.33
 2) 일연은 묘향산으로 비정했는데, 이는 대동강을 대동맥으로 삼는 평양 중심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고조선이 오동에서 출발했으며 단군 신화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오동-압록강 일대의 여타 산을 지목한다. 『앤하위키 미러』 「단군단군신화」, 삼국유사 편에서 발췌.
 3) 홍성암. 『이규보 (동명왕편)의 서사시적 성격과 고구려의 정체성』, p.13-14

(가)“한 나라 신작 3년/첫여름 복성이 이방을 가리킬 때/바다 동쪽의 해모수는/잠으로 하늘의 아들이었다.”

해모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백여인의 종자를 거느리고 온다. 털과 깃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내려온다. 하늘에서 땅까지 2억만 8천 칠백 80리, 아침저녁으로 마음대로 오르내린다.

(나)“성 북쪽에 청하가 있는데/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웠다.”
물의 신인 하백의 세 딸이 웅심 물가⁴⁾에 나와 놀다가 그만 해모수의 눈에 쫓긴다. 해모수는 신통술로 구리집 궁전을 짓고 비단자리 눈부시게 꾸미고 금 술잔에 맛있는 술과 안주로 여자들을 유혹하여 술에 취하게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딸인 유화를 취한다.

(다)“(해모수는) 혼자 붉은 하늘을 타고 올라서/소식 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백은 딸이 약탈혼을 당한 것을 알자 크게 노해서 해모수를 핍박한다. 신통술 재주를 부리는데 하백이 잉어로 변하면 해모수는 수달이 되고, 하백이 꿩이 되니 해모수는 매가 된다. 하백이 사슴이 되면 해모수는 승냥이가 되어 쫓는다. 하백은 해모수를 하늘의 아들로 인정하고 크게 잔치를 벌여 해모수가 취하게 하여 딸과 함께 가족부대에 넣어서 하늘나라로 보낸다. 해모수는 술에서 깨자 가족부대에 갇힌 것을 알고 유화의 머리에 꽃은 비너로 가족을 뚫고 혼자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연못 속의 물고기와 통소선생(압록강의 전설과 명칭 유래)⁵⁾

굽이쳐 흘러가는 압록강 위에/벚노래 가락마다 구슬프구나/강 건너 만주벌은 고구려의 옛땅/줄어든 이 지도를 누가 그렸나

李殷相은 우리 역사의 숨결이 구비구비 깃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鴨綠江을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인 中江鎭에서 鴨綠江 푸른 물길을 따라 60여리를 내려 가면 왼편에 도마봉(1,526m)이 우뚝 솟아 있다.

아득한 옛날, 도마봉 기슭에 오두막을 짓고 외롭게 혼자 사는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雪林이라 하였다. 그는 부모 형제, 처자, 친척도 없는 처지여서 외로운 심사를 달랠 길이 없어 밤이면 홀로 연못가에 나가서 통소를 불곤 했다. 그런데 그 통소 소리가 어찌나 곱고 구슬뿔던지 산 아래 사람들도 이 통소가락을 듣고 때로는 흐느끼고 한숨을 쉬기도 하였으니 나중에는 윤림을 ‘통소선생’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가을밤, 윤림은 어느 때처럼 연못가 바위에 걸터앉아 구슬프게 통소를 불고 있는데 웬 여인이 그를 부르는 게 아닌가!

“여보세요.....”

윤림은 불던 통소를 놓고 고개를 돌려 보니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선녀인양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 높은 산꼭대기에 어인 일로 여자가 홀로 오셨습니까?”

“그 고운 통소 소리에 그만 마음이 이끌려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윤림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여인은 보통사람이 아니었다. 구름을 휘감은 듯 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구곡간장을 다 녹이는 그 통소 소리 한 번 더 듣는 게 소원입니다.”

여인은 한 곡, 한 곡만 더..... 이렇게 하여 밤은 깊어져서 달이 기울어도 여인은 끝끝내 떠날 줄을 모르고 ‘한 곡만 더 들려 달라’ 고 애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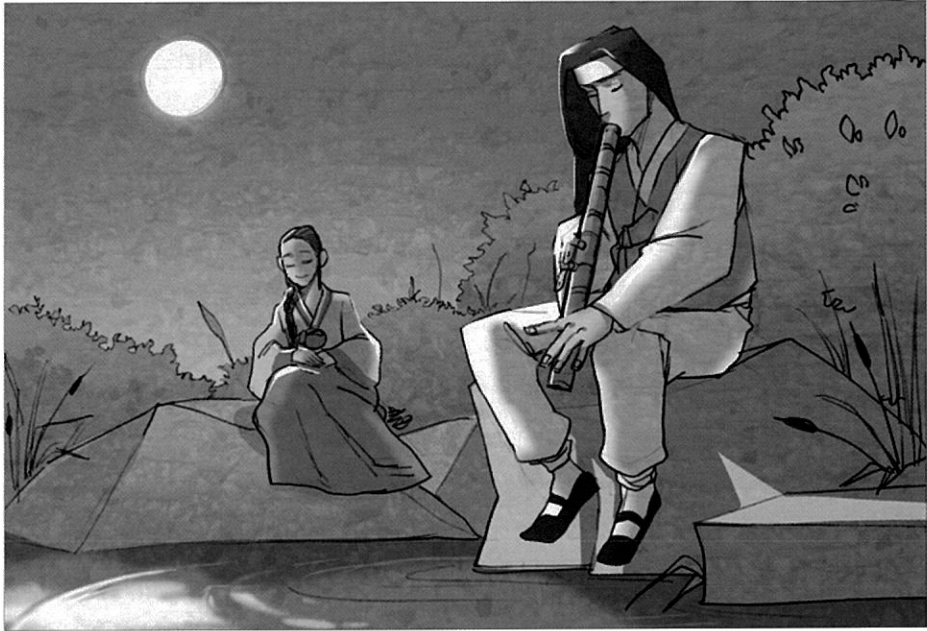
“이젠 달도 기울었으니 그만 맥으로 돌아가시지요.” 하자 “이 좋은 통소 소리를 두고 어디로 가라 하시옵니까?” 여인의 눈에선 금방이라도 구슬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질 것만 같았다.

“세상에 돌아갈 집이 없으니 어떤 영문이지요?”

“아무것도 더는 묻지 마십시오. 소녀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

4) 압록강 물가로 전해짐

5) 이형석, 『백두산천지』, (集泉文化財團), 1993, p.80-82



는 몸입니다. 그러니 소녀를 어여삐 여기시와 이곳에 이 몸을 의탁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 이곳에?”

“예, 하오나 소녀는 통소 소리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고 일생 동안 선비님을 모실까 하오니 부디 소녀의 소원을 들어 주소서!”

윤림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라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이는 분명히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옥황상제께서 선녀를 보내 주신 것이다’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 통소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뜻대로 여기서 머무르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비록 기울어진 오두막집이지만 웃음소리와 통소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렇게 행복 한 나날 속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밭의 곡식은 타고 산천초목까지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고 봉화도 올렸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윤림의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아름답던 자태는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자

기의 목을 쥐어뜯으며 “내 죄가 이렇게 클 줄이야.....” 하며 탄하는 게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윤림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아름답던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더니 ‘서방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시오’ 하고 서럽게 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본시 저 연못 속의 물고기이온데 고운 통소 소리에 이끌려 서방님과 인연을 맺었더니 그 죄로 가뭄이 들고 제 목숨도 말라 죽게 되었으니 제가 연못 속으로 돌아가야 할까 봅니다.”

그리고 멀리 사라져 가는 아내를 부르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곁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정말 보이지 않았다.

윤림은 온 산을 헤매며 아내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때 마른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더니 단비가 마구 쏟아졌다. 그 후 윤림은 매일 연못가에 나가서 통소를 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 못에서 ‘서방님-임’ 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윤림은 정신없이 바위에서 뛰어 내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윤림이 빠져 죽은 연못이라 하여 雲林池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뭄이 들 때마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전해온다. 🌧️